



문학세계사/A5신/430면 내외/각8800원

솔한 화제 뿌리며 13년 만에 완역 출간

살만 루시디의 《악마의 시》

살만 루시디(54)의 소설 《악마의 시(전2권)》(김진준, 문학세계사)가 완역·출간됐다. 1988년 9월 이 소설이 출간된 후 살만 루시디는 무하마드의 열두 명의 아내를 창녀에 비유하는 등 무하마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코란》의 일부를 ‘악마의 시’에 비유하는 등 이슬람교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1989년 2월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호메이니에게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목에 걸린 현상금은 한때 280만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1998년 9월 모하메드 이란 대통령은 루시디에게 내린 사형선고를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 책은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제목처럼 온갖 ‘재앙’을 뿌려댔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은 이란과 단교를 선언했고, 유럽 공동체(EC)는 이란에 경제적·외교적 제재 조치를 가했다. 영국 각지의 펄킨사 소우 서점에 폭탄 테러가 발생했으며 반즈 앤 노블 등 유명 서점은 종업원의 안전을 이유로 이 책의 진열을 중단했다. 하지만 정작 이 책의 지은이인 살만

루시디는 영국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뉴욕 거리를 활보하고 24세 연하의 전직 모델과 열애에 빠지기도 했다.

모두 아홉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소설은 어느 겨울날 아침 동트기 직전, 봄베이발 여객기가 런던 상공에서 폭발하고 주인공 지브릴 파리슈타와 살라딘 참차가 까마득한 상공에서 추락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바다에 떨어진 두 사람에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난다. 지브릴 파리슈타는 후광을 가진 천사로 변하고 살라딘 참차는 발굽과 두 개의 뿔을 가진 악마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현실과 환상,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대결하는 이들의 갈등이 이 소설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다.

시종일관 무수한 신화, 종교, 전설을 아우르는 해박한 지식과 온갖 은유와 상징으로 종횡무진하는 이 소설은 ‘20세기 최고의 문제작’이라는 찬사에 걸맞은 소설적 성취를 보여준다. ‘현재와는 다른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사뭇 고전적인 주제를 지은이는 선과 악, 남과 여, 식민자와 피식민자, 강자와 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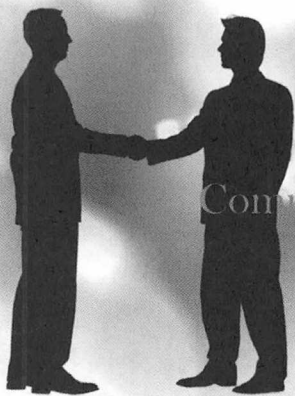
등 인간 세계의 현실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대립과 갈등의 문제들을 그만의 ‘요설’로 분사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 소설은 독자들을 시종일관 어지럽게 한다. 현실과 환상이 뒤엉켜 있는 구성과 수많은 삽입구와 삽입절은 읽는 이를 미로 속으로 몰아넣는다. 루시디는 이야기 중간중간 끼어들어 사건에 직접 개입하기도 한다. 띄어쓰기를 무시하거나 문장 부호를 생략하기 일쑤고 낱말을 의도적으로 변형시키거나 합쳐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인물도 여럿 등장한다. 번역자는 “‘번역자는 텍스트 안에서 모르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신념이 이번처럼 부담스럽기는 처음이었다”고 말하면서 “작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끝낼 때까지 이를 갈았다”며 번역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 동안 이 소설과 작가에 관한 소문은 해외 토픽란에서 전해들을 수 있었다. 또한 국내에서도 몇몇 축약본을 접할 수 있었지만, 완역·출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최갑수 기자

다름에서 디자인은 행복을 느낀다

사람을 이해하는 디자인, 다름의 경쟁력입니다



Communication
Design Partner Darum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명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경쟁력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디자인,
바로 다름의 경쟁력입니다.

시각커뮤니케이션 : 브로슈어 / 카탈로그 / 홍보물/패키지 / CI, BI
출판커뮤니케이션 : 잡지 / 사사 / 사내외보 / 표지 · 본문디자인(단행본, 아동, 학습서)
광고커뮤니케이션 : 신문광고 / 잡지광고 / 포스터 / POP / 캘린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95-1(5F) TEL 02_325_6260_1 FAX 02_325_0944
E-mail daruman@korea.com